



미 증시, 메타 효과, 저가매수세 등으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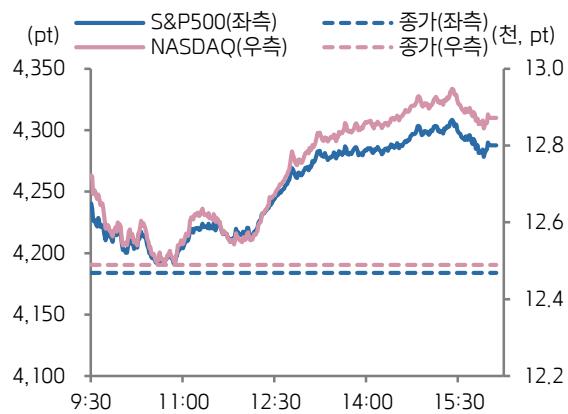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28일 (목) 미국 증시는 메타, 월컴 등 실적 호조세, 저가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급반등. S&P500 지수는 장 초반 1.4% 상승 출발 이후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0.2%까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장중 메타, 월컴 등 실적 호조 소식, 저가매수세 등이 유입되면서 오후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며 마감. 메타(+17.6%)는 실적 혼조에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DAU를 기록하며 급등, 애플(+4.5%), 아마존(+4.7%)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다우 +1.85%, S&P500 +2.47%, 나스닥 +3.06%, 러셀 2000 +1.8%).

업종별로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4%), 통신(+3.9%), 에너지(+3.1%)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유트리티(+1.1%), 산업재(+1.1%), 금융(+1.3%)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5.6%)는 월컴의 실적 및 가이던스 호조세에 힘입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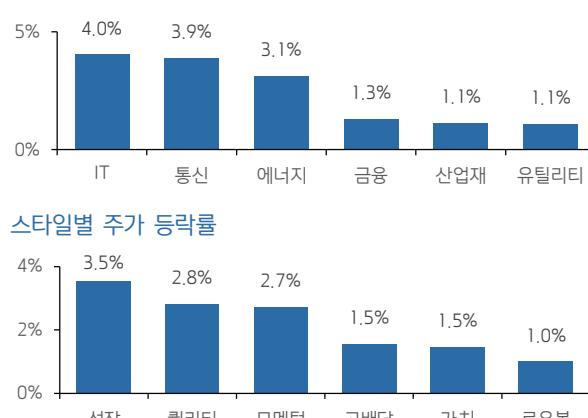
종목별로 맥도날드(+2.9%), 머크(4.9%) 도 실적 호조세 급등, 한편 캐타필러(-0.7%), 암젠(-4.3%)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불구하고 주가 하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과 애플은 모두 실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장외로 하락 중. 아마존은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과 리비안 투자로 76 억 달러 손실을 기록한 점이 부담요인으로 작용, 애플은 지속적인 공급망 차질 이유로 인해 분기 가이던스를 40~80 억 달러로 제시한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아마존은 장외로 약 10%, 애플은 약 3% 하락 중.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87.50	+2.47%	USD/KRW	1,272.40	+0.57%
NASDAQ	12,871.53	+3.06%	달러 지수	103.67	+0.7%
다우	33,916.39	+1.85%	EUR/USD	1.05	-0.01%
VIX	29.99	-5.09%	USD/CNH	6.66	+0.01%
러셀 2000	1,917.94	+1.8%	USD/JPY	130.86	+0.01%
필라. 반도체	3,056.36	+5.5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324.13	+2.62%	국고채 3년	2.920	+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60	-2.7bp
Eurostoxx50	3,777.02	+1.13%	미국 국채 2년	2.617	+2.6bp
MSCI 전세계 지수	665.80	+1.82%	미국 국채 10년	2.822	-0.9bp
MSCI DM 지수	2,861.55	+1.9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53.82	+0.97%	WTI	105.36	+3.27%
MSCI 한국 ETF	66.35	+1.76%	금	1891.3	+0.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4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72.1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아마존 어닝 쇼크에 따른 시간외 주가 급락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1,270 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 여부
3. SK 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만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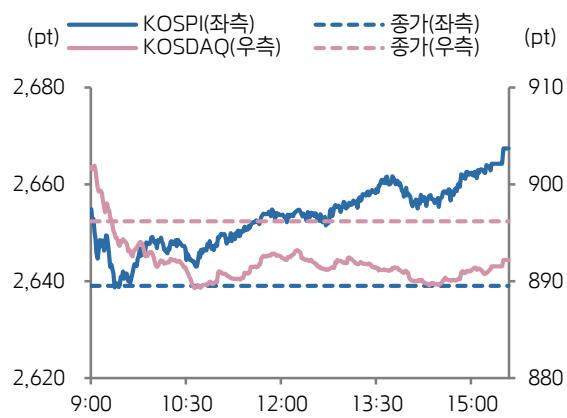
미국의 1 분기 경제성장률(-1.4%연율, 예상 +1.0%)이 지난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マイ너스를 기록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등의 일시적인 충격이 커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오히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는 2.7%(4 분기 2.5%)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2.9%→9.2%)도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 하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것으로 판단.

일각에서는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놓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자라나고 있는 듯 보임. 하지만 여전히 5 월 50bp 인상확률은 96%대, 6 월 75bp 인상 확률은 82%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연준 긴축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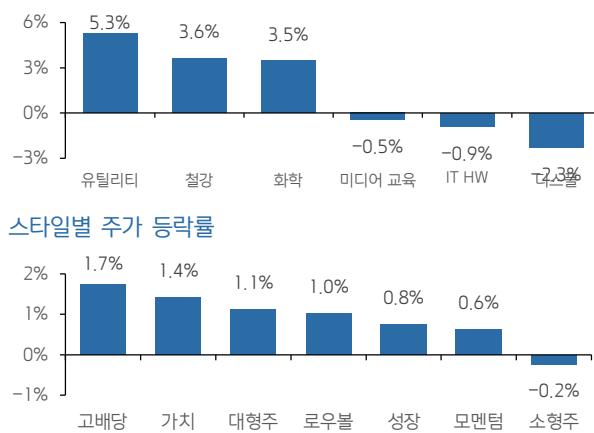
이처럼 중국 봉쇄조치, 연준 긴축 등 매크로 상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그 가운데 대부분 기업들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증시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다만, 금주를 기점으로 미국 빅테크, 국내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만큼, 차주부터는 재차 매크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의 급등 효과,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진행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미국 장 마감 후 아마존(+4.7%)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시간외 주가가 10%대 급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애플, 테슬라, 알파벳 등 여타 빅테크주들도 시간외에서 1%대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시킬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